



백종원 대표
“지역에 맞는
성공모델 만들어야”
N1



Life

투썸
미국 본토 시장
공략 나선다
L2



집은 녹음 속 펼쳐진 ‘작은 우주’... 일상에 상상력을 심다

아파트의 미학(美學)

평택 고덕 예미지

고덕국제신도시 들어선 431가구 단지
삼성 평택캠퍼스, 대형 유통시설 인접

소나무·전나무 등 녹음으로 꾸민 조경
중앙 잔디마당에 펼쳐진 ‘작은 우주’
정원 전체, 태양계 한 장면으로 꾸며

바위와 식물 층층이 쌓여진 석가산
단지 곳곳 실내외 휴게공간 배치해
놀이터 테마로 이어진 우주 세계관
수경시설 갖춘 어린이 물 놀이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예미지 단지 내 중앙 잔디마당. 태양계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성채리 기자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평택 고덕 예미지’. 수도권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이나 SRT·1호선이 지나는 평택지제역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단지에 닿는다. 새 아파트와 상가, 공원이 이어지며 신도시 특유의 정돈된 풍경이 펼쳐진다.

금성백조가 공급한 평택 고덕 예미지는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A48블록에 들어섰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3층, 5개동, 총 431가구 규모다.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된 선시공, 후반양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단지는 직주근접성과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입지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가깝고 고덕연구개발(R&D) 테크노밸리 조성 예정 부지도 인접해 있다. 홈플러스 송탄점과 코스트코 평택점 등 대형 유통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평택시청·시의회 신청사는 2028년 하반기 준

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교통망으로는 수도권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SRT·1호선이 지나는 평택지제역이 있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도 올해 말 준공·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차량으로 고덕IC에 진입하면 수도권과 충청권 등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자녀 교육에도 최적화됐다. 고덕함박초등학교와 해장초등학교·해장중학교, 학원가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평택시는 올해 1월 미국 사립학교인 에니라이트스쿨과 국제학교 설립·운영 본협약을 체결했다. 특목고 예정 부지를 포함한 에듀타운 조성도 추진 중이다.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짙은 녹음이 눈에 들어왔다. 비가 그친 직후라 잎과 잔디는 한층 선명한 초록빛을 띠었다. 벽돌색 산책로 양옆으로 소나무와 전나무를 비롯한

키 큰 수목이 이어졌다. 나뭇가지가 산책로 위로 뻗은 구간에서는 잠시 고요한 숲속에 들어온 듯했다.

넓은 잔디 공간도 단지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커뮤니티시설 뒤편에는 나무 벤치와 가볍게 몸을 풀 수 있는 운동 공간이 마련됐다.

평택 고덕 예미지 단지의 메인 조경은 중앙광장과 잔디마당에 펼쳐진 ‘작은 우주’다. 잔디밭 중앙에는 태양을 형상화한 붉은 조형물이 솟대처럼 서 있고, 주변에는 목성과 금성, 지구 등 행성들을 배치했다. 크기와 색깔이 서로 다른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단순히 작품 한 점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원 전체를 태양계의 한 장면으로 꾸몄다. 입주민은 단지를 걷다가 초록빛 잔디 위에 떠 있는 듯한 행성들을 여러 방향에서 마주하게 된다. 익숙한 아파트 정원에 낯선 우주 이미지를 끌어들이며 색다른 볼거리를 만들었다.

행성 조형물 옆에는 크고 작은 바위를 층층이 쌓은 석가산이 자리했다. 봉우리처럼 솟은 바위 사이사이에 나무를 심고, 아래에는 둥근 자갈과 넓적한 돌을 깔아 계곡 바닥처럼 조성했다. 알록달록한 행성 조형물이 이색적인 분위기를 뿜다면 석가산은 거친 바위 질감과 녹음으로 입주민의 일상에 자연의 풍경을 들여놓았다.

잔디밭 한쪽에는 김성용 작가의 작품 ‘마음의 소리’가 보인다. 선명한 주황색의 두 형상이 서로를 향해 맞닿은 모습이다. 나선형으로 확장되는 표면은 말과 생각이 파동처럼 퍼져 나가는 모습을, 중심에서 바깥으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층은 대화가 쌓이고 해석되는 과정

을 형상화했다.

단지 곳곳에는 여러 형태의 휴게공간을 배치했다. 검은 프레임과 긴 나무 상판으로 구성된 테이블이 있는가 하면, 흰색 기둥과 투명한 유리 지붕 아래 붉은색 철제 탁자와 의자를 놓은 공간도 있다. 지붕과 기둥에는 예미지의 꽃 모양 브랜드 로고를 더했다. 석가산과 행성 조형물을 바라볼 수 있는 통유리 실내 공간도 마련됐다. 휴게공간마다 색과 가구 형태를 달리해 단조로움을 떨쳤다.

중앙광장에서 시작된 세계관은 어린이 놀이터에서도 이어졌다. 작은 놀이터는 ‘평택에 떨어진 거대한 혜성’을 주제로 만들어졌다. 오각형 구조물을 중심으로 주황색 꼬리가 길게 뻗은 형태를 더해 땅에 떨어진 혜성을 표현했다. 보라색과 청록색, 노란색 등 역동적인 색을 조합해 잔디마당의 행성과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었다.

수경시설을 갖춘 물놀이터에서는 우주 콘셉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대형 놀이시설에는 ‘게이트 오브 더 멀티버스(Gate of the Multiverse)’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미끄럼틀과 물놀이 시설이 거대한 우주선이나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처럼 보이도록 구성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예미지는 조경에 선명한 색채와 이색적인 콘셉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러한 요소를 짚은 회

색 건축물과 풍성한 식재가 반쳐주며 전체적인 균형을 이뤘다. 짙은 녹음 사이에 행성과 혜성, 꽃무늬를 흩어 놓은 풍경은 단지를 ‘자연 속 작은 우주’로 완성했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진우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연임 성공...“한국 불교 새 100년 열겠다”
▲장애인도 영화 즐길 권리 있다...대법 “자막 제 공해야”
/사진 뉴스스

▲국립한글박물관, 충남지역 생활상 담긴 한글자료 공개
▲25억원에 팔린 유명국작, 북미 미술관 이사회가 소장

▲오타니 왼쪽 무릎 통증에 시즌 투수 복귀 불발 가능성
▲타이거 우즈, 차량 전복 사고로 5년 면허 정지 처분